

BOK 이슈노트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 요인 및 평가



박창현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
Tel. 02-759-4187
ch.park@bok.or.kr

유민정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조사역
Tel. 02-759-4426
mjyoo@bok.or.kr

2020년 6월 18일

최근 30~50대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가 지속되면서 고용상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가계 소득원 및 기업 생산자로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는 성장잠재력 약화, 노년부양 부담 가중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은 핵심노동인구 고용의 추세적 감소 요인과 맞물려 고용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핵심노동인구 고용변동의 주요 요인을 노동공급, 경기변동 및 인구구조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노동인구 고용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해 본 결과, 2015년 이후 해당 연령층의 취업자수 증가율 하락은 인구감소와 경제활동참여 저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가 고용의 구조적·장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핵심노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을 중심으로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구직확률 저하, 산업·직업 구조변화에 따른 중·저숙련 일자리 감소,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등으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남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한다.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제약 하에서 핵심노동인구의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실직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핵심노동인구의 노동시장 퇴장을 방지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원활한 직업이동 및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및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이들의 경제활동을 제고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검토배경

최근 30~50대 핵심노동인구¹⁾의 고용둔화가 지속되면서 전체 취업자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전체 취업자수는 연평균 33만명 늘어난 반면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증가규모는 빠르게 줄어들면서 2018년 감소로 전환되었다. 핵심노동인구의 고용상황은 해당 연령층의 인구감소를 감안하더라도 부진한 상황이다. 2018~2019년중 핵심노동연령층의 고용증가율이 -0.7%로 동인구증가율(-0.6%)보다 낮고, 특히 40대는 -2.1%로 인구증가율(-1.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그림 1〉,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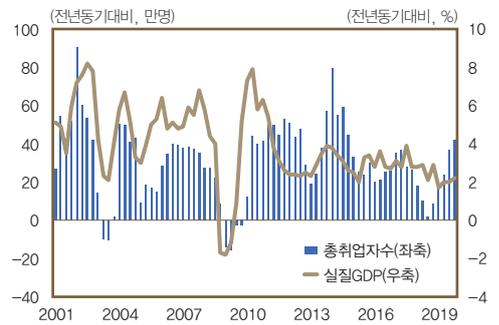
가계 소득원 및 기업 생산자로서의 주된 역할을 수행²⁾하는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는 성장잠재력 약화, 노년부양 부담 증가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그 원인 규명과 대응방안 마련이 긴요하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은 핵심노동인구의 고용에 부정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추세적 감소 요인과 맞물려 고용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핵심노동인구 고용변동의 추이 및 주요 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변동 추이를 연령대별, 성별, 산업별, 직업별로 나누어 살펴본 후 고용변동 요인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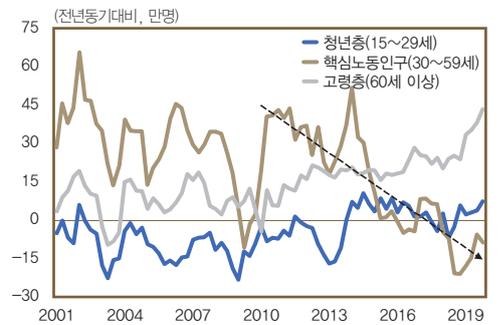
(노동공급) 변화, 실업률(경기변동) 변화 및 인구구조 변화로 분해하여 요인별 기여도를 측정하였다. III장에서 각 요인별로 좀 더 자세히 점검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IV장에서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평가하고 관련된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정리하였다.

〈그림 1〉 경기 및 취업자수 증감



자료: 당행,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연령계층별 취업자수 증감¹⁾



주: 1) 점선은 2010년 이후 핵심노동인구 고용 증감의 선형추세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ILO는 핵심노동 연령(prime working-age)을 25~54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남성의 군복무, 높은 대학진학률, 정년 60세 연장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핵심노동 연령을 30~59세로 규정하였다.

2) 2019년 기준 핵심노동인구는 총가구주의 60.4%, 총취업자수의 6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연령층이 가구주인 가계의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의 1.2배 수준이다(통계청).

II. 핵심노동인구 고용변동 추이 및 요인 분해

1. 고용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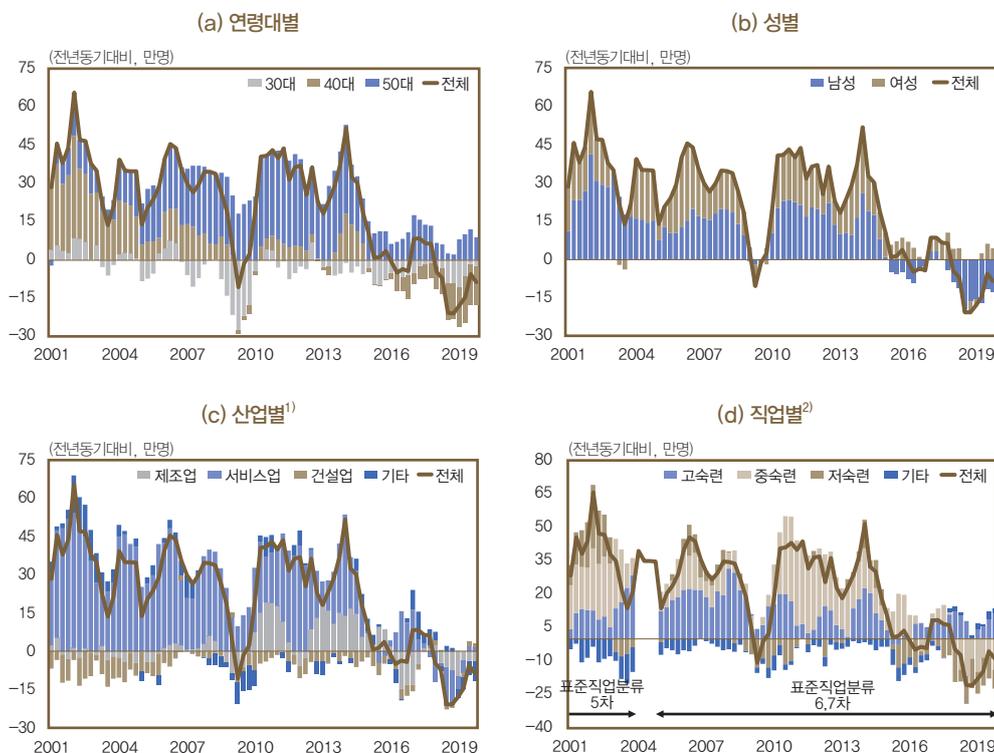
2015년 이후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변동을 보면 연령대별로는 30~40대 고용이 감소하고 50대 고용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었으며, 성별로는 남성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서비스업 고용도 최근 들어 주춤한 모습이다. 직업별로는 판매직과 기능직 등 중·저숙련(middle- & low-skilled) 직업군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그림 3〉 참조).

2. 고용변동 요인 분해

(고용변동 요인 분해 방법)

고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여부 선택, 기업의 노동수요, 구인-구직 매칭(matching) 등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표 1〉 참조). 따라서 취업자수 증가는 다음과 같이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과 병용) 변화(노동공급 요인), 실업률 변화(경기 및 마찰적 요인), 및 인구구조 변화(외생적·구조적 요인)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표 2〉 참조);

〈그림 3〉 부문별 핵심노동인구 취업자수 증감



주: 1) 기타 산업은 광업, 농림어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이 포함됨

2) OECD(2019)에 따라 기술수준별로 직업(대분류 기준)을 고숙련(high-skilled), 중숙련(middle-skilled) 및 저숙련(low-skilled)으로 분류. 기타는 농림어업 종사자.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 ①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노동자의 노동공급 의사가 높을수록(낮을수록) 취업자수가 증가(감소)³⁾
- ② 실업률 변화: 경기가 호조(부진)를 보일수록 혹은 노동시장 마찰이 작을수록(클수록) 실업률이 하락(상승)하고 취업자수가 증가(감소)
- ③ 인구구조 변화: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폭 축소 및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는 고용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

(고용변동 요인 분해 결과)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2015년 이후 취업자수 증가율 하락은 해당 연령층의 인구감소와 경제활동참여 저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에서와 같이 핵심노동인구 취업자수 증가율은 2015~2019년중 1.12%p 하락하였는데, 인구감소(-0.73%p) 및 경황률 하락(-0.45%p)이 이를 대부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실업률의 변화는 최근 핵심노동연령층의 실업률이 소폭 하락하면서 미미하나 고용감소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1〉 노동공급 및 고용 과정



〈표 2〉 취업자수 변동률 분해

$$E = \frac{L}{N} \cdot \frac{E}{L} \cdot N = l \cdot (1-u) \cdot N$$

$$d \ln E = d \ln l + d \ln (1-u) + d \ln N$$

취업자수 증감 = ① 경황률 변화 + ② 실업률 변화 + ③ 인구변화

▶ 노동공급 요인 ▶ 경기요인 ▶ 외생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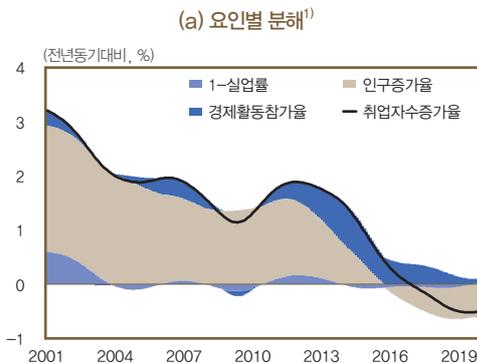
단, E는 취업자수, L은 경제활동인구, N은 15세 이상 인구, l은 경황률, u는 실업률

3) 경황률은 경기변동과도 관계가 있지만 노동자가 최종적으로 경제활동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경기요인과 구별된다.

성별·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인구변화는 전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고용증가를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황률 변화의 고용변동에 대한 영향은 계층별로 차별화된다. 남성 및 40대 여성 핵심노동인구의 경우 인구감소와 경황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고용이 빠르게 감소한 반면 30대·50대 여성 경황률 상승이 인구증가를 하락(또는 인구감소)의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그림 5) 참조).

따라서 외생적 요인인 인구구조 변화, 경기 변동(실업률)의 고용에 대한 미미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핵심노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없이는 당분간 고용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핵심노동인구 취업자수 변동률 요인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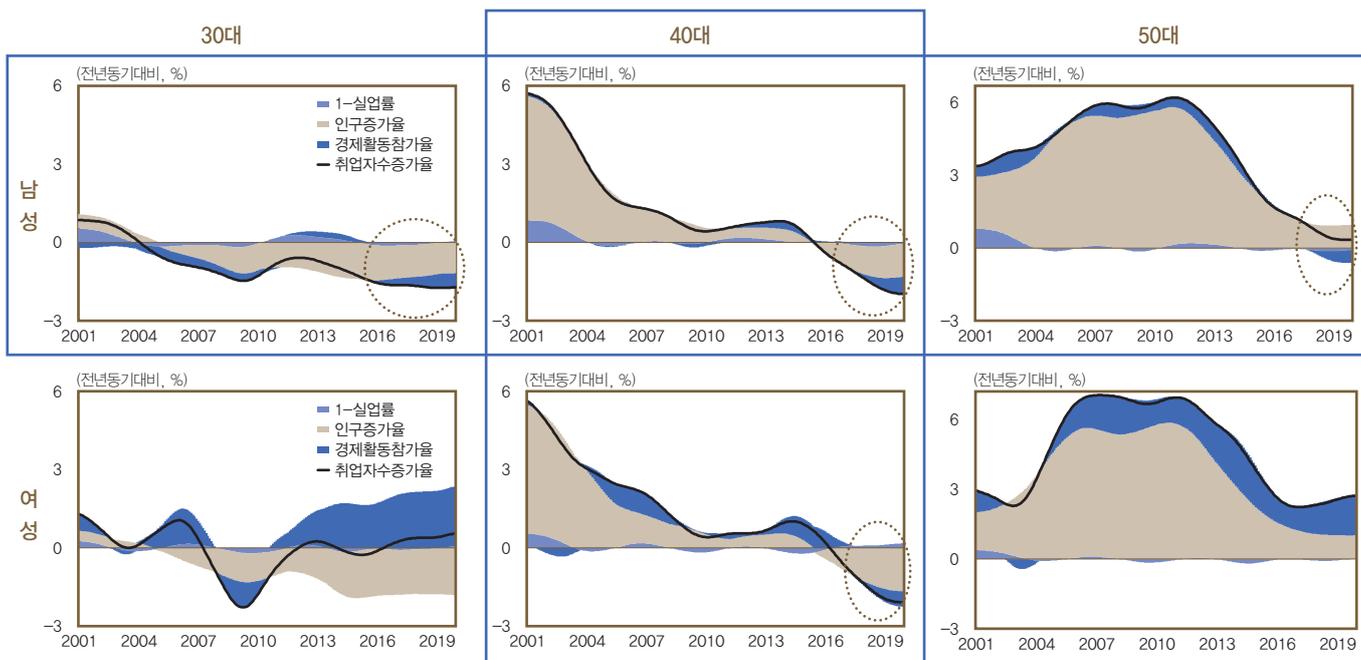


(b) 요인별 기여도²⁾

	2015 (A)	2017 (B)	2019 (B)	[B-A, %p]
경황률 변화	0.56	0.34	0.11	-0.45
(1-실업률) 변화	-0.07	-0.05	-0.01	0.06
인구변화	0.12	-0.44	-0.61	-0.73
취업자수 증가율	0.61	-0.14	-0.51	-1.12

주: 1) HP필터를 이용하여 추세 추출 후 분해
 2) 추세변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체 계산

〈그림 5〉 핵심노동인구 성별·연령대별 취업자수 변동률 분해¹⁾



주: 1) HP필터를 이용하여 추세 추출 후 분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체 계산

III. 핵심노동인구 고용둔화 요인별 평가

본 장에서는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 요인별 변화(①경제활동참가율 하락, ②실업률 등락, ③인구감소)를 세밀히 분석·점검한다.

1.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그림 6>에서 보듯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핵심노동인구의 경황률은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인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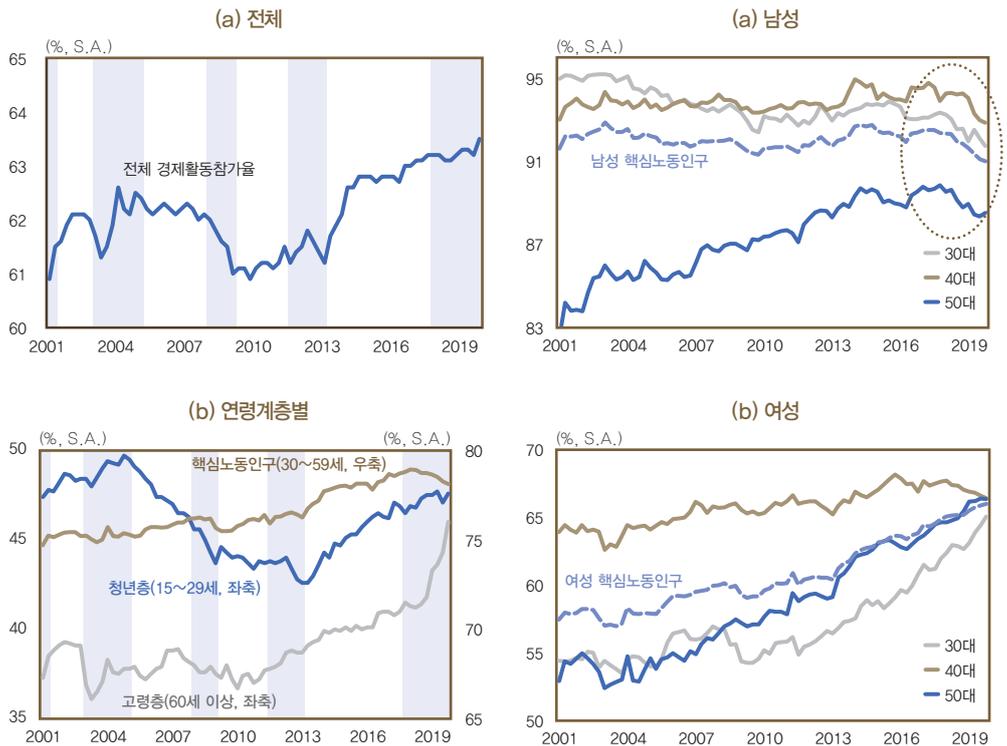
여성의 경우 40대를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지속하였다(<그림 7> 참조).

남성 핵심노동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변화⁴⁾를 분석해 볼 때, 최근 남성 경황률 하락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개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한다. Shimer(201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남성 핵심노동인구의 경제활동상태 전환율을 추정⁵⁾한 결과, 2015년 이후에도 비경황→경황 전환률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그림 6> 경제활동참가율 추이¹⁾



<그림 7> 핵심노동인구의 성별·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¹⁾



주: 1) 음영은 경기수축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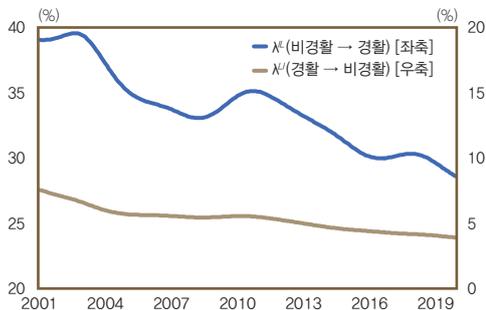
주: 1) BOK-X13 ARIMA 이용하여 계절조정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경제활동상태 변화는 “경황→비경황” 또는 “비경황→경황”로 구분된다.
5) Shimer(2012)에 따라 경제활동상태 전환율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blacktriangleright \text{경황} \rightarrow \text{비경황 전환율: } \lambda_t^{LI} = \frac{M_t^{LI}}{M_t^{LI} + M_t^{LL}}, \quad \blacktriangleright \text{비경황} \rightarrow \text{경황 전환율: } \lambda_t^{IL} = \frac{M_t^{IL}}{M_t^{IL} + M_t^{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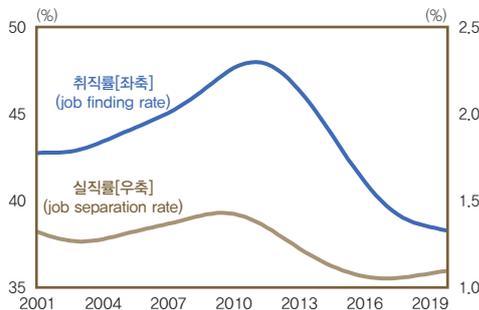
단, λ^{AB} 는 상태 A→B 전환율, M^{AB} 은 상태 A→B 노동이동 규모, L은 경황인구, I는 비경황인구

〈그림 8〉 남성 핵심노동인구의 경제활동상태 전환율¹⁾²⁾³⁾



주: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개별 ID가 제공되지 않아 오삼일·강달현 (2019)에 따라 생년월, 성별, 교육수준 등 11개 정보를 활용하여 동일인 식별(평균 식별률 23.0%) 후 상대전환율 계산
 2) HP필터를 이용하여 추세 추출
 3) Shimer(2012)에 따라 기간전환율을 순간전환율로 변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자체 추정

〈그림 9〉 남성 핵심노동인구의 취직률 및 실직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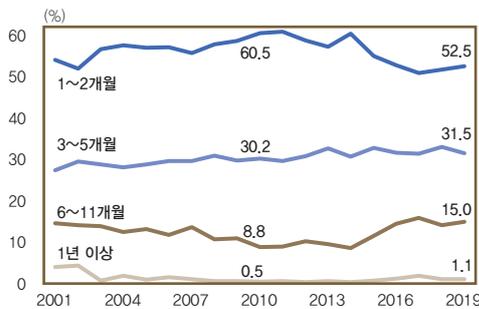
주: 1) HP필터를 이용하여 추세 추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자체 추정

남성 핵심노동인구의 비경황→경황 전환 추소는 ①구직확률 저하, ②산업·직업의 구조적 변화, ③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등과 연관된다.

먼저 〈그림 9〉와 같이 2010년대 들어 구직확률이 저하되면서 핵심노동연령층의 취직률(job finding rate)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⁶⁾ 이에 따라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중도 상승하였다(〈그림 10〉 참조).

다음으로 자동화 등에 따른 산업·직업 구조 변화로 인해 중·저숙련(low- & middle-skilled) 직업군 및 관련 업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남성 핵심노동인구의 실직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참여 동기가 저하되고 있다.

〈그림 10〉 남성 핵심노동인구의 구직기간별 실업자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구체적으로 남성 핵심노동인구는 중·저숙련 판매, 기능, 장치·조립 직업군에서 종사 비중이 낮아지고 중·고숙련 사무 및 전문직, 저숙련 서비스 직업군에서는 그 비중이 상승하였다(〈그림 11〉 참조). 국내외 연구에서도 제조업 중·저숙련 직업군 종사 비중이 높은 핵심노동인구가 자동화, 외주화 등으로 직업을 상실하거나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Abraham·Kearney, 2018; Charles *et al.*, 2018; Valletta·Barlow,

6) Barnichon(2018)은 미국 핵심노동인구의 경황-비경황간 전환이 취직률 변화와 연관됨을 확인한 바 있다. Shimer(2012) 방법론을 따라 비경황인구로부터의 유출입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음 수식의 실험동학으로부터 취직률(f_t) 및 실직률(χ_t)을 도출할 수 있다.

$$f_t = -\ln\left(\frac{U_{t+1} - U_t^s}{U_t}\right), \quad U_{t+1} = \frac{(1 - e^{-f_t - \chi_t}) \chi_t}{f_t + \chi_t} \cdot L_t + e^{-f_t - \chi_t} U_t$$

단, U_t 는 실업자수, U_t^s 는 신규실업자수, L_t 는 경황인구

2018; 박용민 외, 2018). 또한 30~50대 남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비율도 상승하였다.⁷⁾ 최근 3년간(2017~2019년) 비자발적 이직⁸⁾률(전체 종사자수 대비)은 2.4%로 직전 3개년(2014~2016년, 1.8%)보다 0.6%p 상승하였고, 이중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3개 산업의 기여율이 70%를 상회한다(그림 12) 참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제조업 강국들도 정형화(routine)되거나 노동집약적(manual)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남성 핵심노동인구의 경황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다(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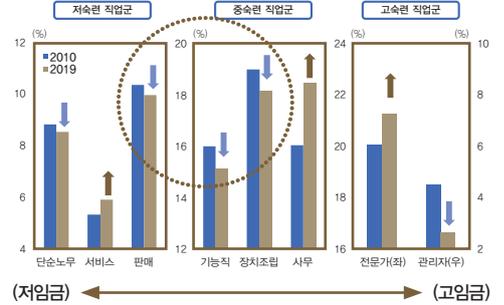
아울러 학력-일자리, 기술-일자리 간 미스매치에 따른 구직활동 단념(비경황인구) 비중이 최근 상승한 점에 비추어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미스매치도 남성 핵심노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남성 핵심노동인구의 비구직활동 사유¹⁾

사유	'14~'16 [A]	'17~'19 [B]	B-A (%p)
전공·경력에 맞는 일자리 부재	12.7	14.4	+1.7
임금·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 부재	30.6	28.2	-2.4
주변 일자리 부재	9.9	8.8	-1.1
교육·기술·경험 부족	8.0	13.0	+5.0
과거 구직시 일자리 부재 경험	25.1	23.1	-2.0
기타(연령, 육아, 장애 등)	13.7	12.5	-1.2
계	100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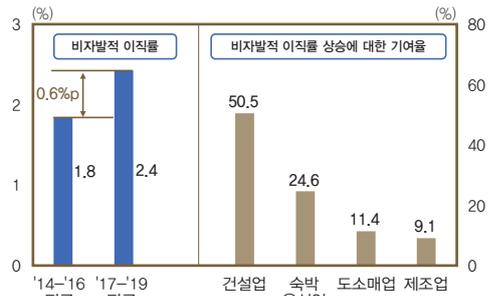
주: 1) 조사주기에 직장을 원하였음에도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응답자의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그림 11〉 남성 핵심노동인구 기술수준¹⁾·임금수준²⁾별 직업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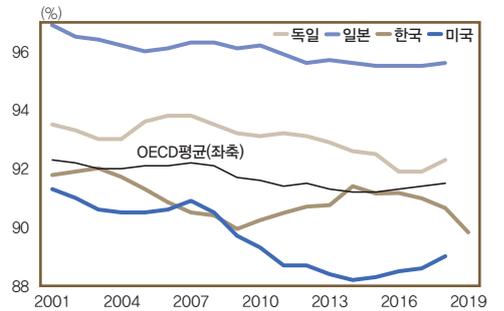
주: 1) OECD(2019)에 따라 직업 분류
 2) 월임금 4백만원 이상의 비중(2019. 상반기)에 따라 저-고임금 직업으로 분류.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12〉 비자발적 이직¹⁾률 변화



주: 1) 고용계약종료,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라 이직 또는 퇴사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13〉 주요국 남성 핵심노동인구¹⁾ 경제활동참가율



주: 1) 25~54세 기준
 자료: 통계청, OECD

7)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취업자중 남성의 비중은 각각 89.5%, 72.3%, 55.3%(2019년)이다(통계청).

8) 비자발적 이직에는 고용계약종료,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 등이 포함된다.

2. 실업률 등락

핵심노동인구의 실업률은 2% 중반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핵심노동인구 실업률은 평균 2.6%로 과거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표 4 참조).

〈표 4〉 연령대별 실업률 변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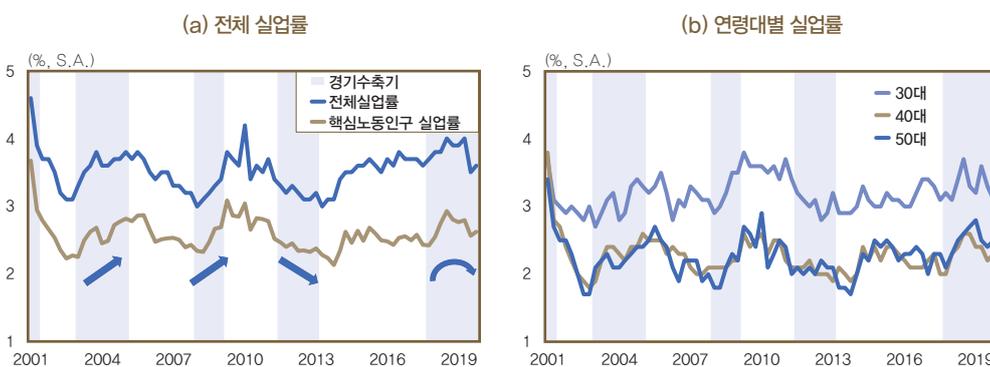
연령층	(기간평균, %)			
	'01~'07	'10~'14	'15~'19	'18~'19
청년층 15~29세	7.7[6.4]	8.0[7.8]	9.4[6.2]	9.2[7.3]
30~39세	3.1[7.4]	3.2[8.6]	3.2[6.0]	3.3[6.6]
핵심 노동 인구 40~49세	2.3[16.2]	2.2[9.7]	2.3[7.5]	2.4[5.9]
50~59세	2.3[15.0]	2.2[12.9]	2.4[7.9]	2.5[6.3]
계	2.6[10.8]	2.5[9.2]	2.6[5.5]	2.7[4.8]
고령층 60세 이상	1.2[18.2]	2.4[23.2]	3.0[12.8]	3.3[9.0]
전 연령층	3.6[8.6]	3.4[8.3]	3.7[4.0]	3.8[4.7]

주: 1) [] 내는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100), 분기 계절조정 실업률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대 들어서는 핵심노동인구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실업률의 경기역행성이 약화되었다. 〈그림 14〉에서 보듯이 2017.9월 경기 정점 이후 수축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실업률은 2019년중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간 시차상관계수를 보더라도 2010년 이전에는 유의하게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었으나 2010년대 들어 소폭 양(+)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또한 GDP갭률과 실업률갭 간 음의 관계(-2.5)였던 오쿤 계수갭(Okun's coefficient)이 2010년대 들어 플러스(+0.6)로 반전되었다는 점도 경기-실업률 간 관계 약화를 뒷받침한다(표 5 참조).⁹⁾ 이 같은 변화는 고용변동에 대한 경기요인의 기여도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고용상황과 경기 간 관계는 자동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가속, 은퇴세대의 노동시장 잔류 심화 등으로 2010년대 이후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박세준 외, 2013; 이동진, 2019).

〈그림 14〉 경기 및 실업률¹⁾



주: 1) 음영은 경기수축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9) Abel · Bernanke · Croushore(2014)는 미국 데이터(1951~2011년)를 이용하여 오쿤 계수갭을 -2.0으로 추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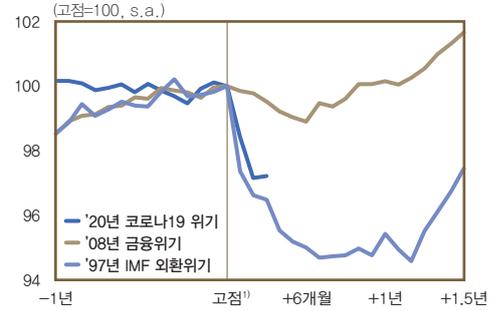
〈표 5〉 경기-실업률 간 관계

(a) 시차상관계수¹⁾

시차 ²⁾	2010년 이전 (’01.1/4~’10.4/4)	2011년 이후 (’11.1/4~’19.4/4)
t	-0.51	+0.18
t-1	-0.63	+0.15
t-2	-0.51	+0.23
t-3	-0.40	+0.06
t-4	-0.19	+0.06

주: 1) 실질GDP(S.A., 대수변환) 및 실업률(S.A.)을 HP필터로 추세 제거 후 계산
2) 실업률 후행시차
자료: 당행, 통계청

〈그림 15〉 경제위기시 핵심노동인구 고용변동



주: 1) 고점은 외환위기시 ’97.12월, 금융위기시 ’08.11월, 코로나19 위기는 ’20.2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b) 오크 계수(Okun's coefficient)¹⁾

$$GDP\text{갭률} = \text{상수} + \beta \cdot \text{실업률갭}$$

β : 오크 계수

	2010년 이전 (’01.1/4~’10.4/4)	2011년 이후 (’11.1/4~’19.4/4)
β	-2.46*** (0.75)	+0.64 (0.44)

주: 1) ()내는 표준편차, ***는 1%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당행, 통계청, 자체 추정

〈표 6〉 최근 월별 고용변동¹⁾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

	’20.1월	2월	3월	4월	5월
경황률 변화	0.40	0.27	-0.89	-1.81	-1.34
(1-실업률) 변화	0.24	0.29	-0.02	-0.17	-0.65
인구변화	-0.66	-0.71	-0.75	-0.79	-0.80
취업자수 증가율	-0.02	-0.15	-1.66	-2.77	-2.79

주: 1) 핵심노동인구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다만 최근 코로나19 위기가 과거 경제위기시와 같이 고용에 대한 경기요인(실업률)의 영향력을 단기적으로 확대시켜 고용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그림 15), 〈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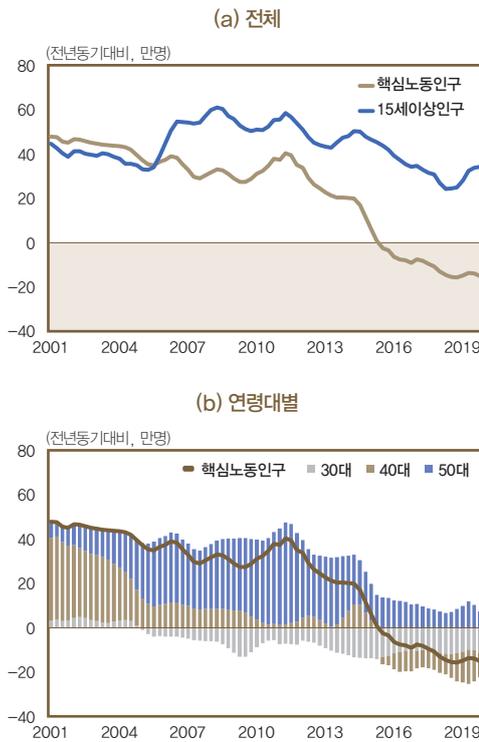
3. 인구 감소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로 유출인구가 증가하고 청년층 인구 감소로 유입인구는 감소하면서 핵심노동인구는 2016년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6년 이후 1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32만명 증가하였으나 핵심노동인구는 11만명 감소를 기록하였다.¹⁰⁾ 30대 인구는 2005년부터, 40대는 2015년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50대는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그림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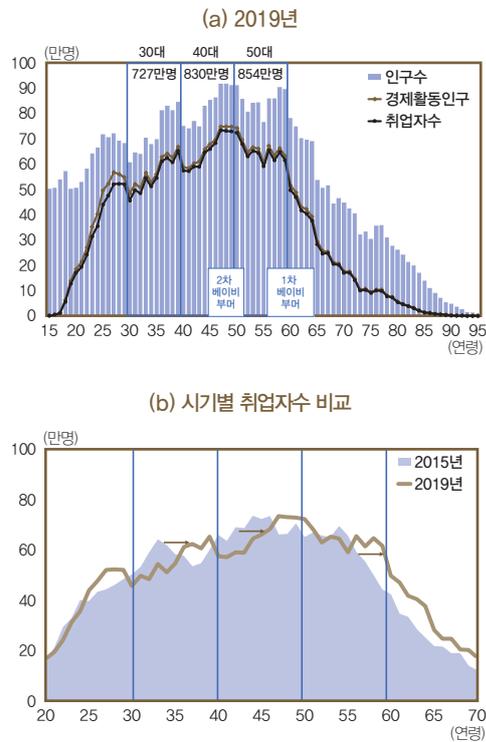
10) 최근 2년(2018~2019년)은 1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29만명 증가하고 핵심노동인구는 14만명 감소하였다.

〈그림 16〉 핵심노동인구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7〉 인구 및 취업자수¹⁾²⁾



주: 1) 2019년, 만15세~만95세 기준
 2) 1차 베이비부머는 1955~63년생, 2차 베이비부머는 1968~74년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핵심노동연령층의 인구감소로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도 동반 감소되었다. 실제로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증감률 간 상관관계수(2011.1/4분기~2019.4/4분기)는 0.87(0.8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수의 연령별 분포도 인구구조와 유사한 구릉(hump-shaped) 모양으로 고점이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에도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그림 17〉, 〈표 7〉 참조).

앞으로도 인구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는 핵심노동연령층의

경제활동 및 취업자수 증가의 구조적·장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¹¹⁾

〈표 7〉 연령대별 취업자수 및 인구 증감률¹⁾

(기간평균, %)

연령층	'01~'07	'10~'14	'15~'19	'18~'19
청년층	15~29세 -1.9[-1.8] -1.0[-0.9]	+0.7[-0.7]	+0.5[-1.2]	
핵심노동인구	30~39세 +0.1[+0.0] -0.4[-1.1]	-1.0[-1.5]	-1.0[-1.5]	
	40~49세 +3.1[+2.8] +0.8[+0.5]	-1.2[-1.0]	-2.1[-1.4]	
	50~59세 +4.6[+4.0] +5.9[+4.7]	+1.6[+1.3]	+1.1[+1.0]	
계	+2.2[+1.9] +1.9[+1.2]	-0.2[-0.4]	-0.7[-0.6]	
고령층	60세 이상 +3.9[+3.7] +5.1[+3.9]	+6.4[+5.1]	+7.2[+5.2]	
전 연령층	+1.5[+1.1] +1.8[+1.2]	+0.9[+0.8]	+0.7[+0.7]	

주: 1) [] 내는 인구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1) (전년대비, %)
 ▶ 중위추계인구(30~59세)
 • 남성 -0.5 -0.7 -0.8
 • 여성 -0.8 -1.1 -1.2
 자료: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IV. 종합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 핵심노동인구의 고용은 30~40대(연령대별), 남성(성별), 제조업 중·저숙련 직업군(산업·직업별)을 중심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는 해당 연령층의 인구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된 데 기인한다.

생산 및 소비의 주요 주체인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긴요한 정책과제이다.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 등 산업·직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직무중심의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자의 직업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흥인력 비중이 높은 50대 및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고학력화, 기술진보 등으로 학력-일자리, 기술-일자리 간 미스매치가 큰 상황에서 고용지원서비스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구직가능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및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핵심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해 고용충격을 완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핵심노동연령층 고용의 구조적·장기적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상황 평가에 인구요인을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부록〉

기술수준별 · 임금수준별 직업 분류

OECD(2019)는 ILO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의 대분류 기준으로 <표 a-1>과 같이 저숙련(서비스 및 판매, 단순노무), 중숙련(사무, 기능원, 장치·기계조작·조립), 고숙련(관리자,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직업군으로 구분하였다.

〈표 a-1〉 기술수준별 직업분류 및 코드연계표¹⁾

숙련그룹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²⁾	
	대분류	직업	대분류	직업
저숙련 직업 (low-skilled)	5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service workers, and shop and market sales workers)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elementary occupations)	9	단순노무 종사자
중숙련 직업 (middle-skilled)	4	사무 종사자 (clerks)	3	사무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craft and related workers)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고숙련 직업 (high-skilled)	1	관리자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1	관리자
	2	전문가 (professionals)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주: 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및 군인은 제외

2) 통계청 국제표준직업분류 연계표 기준

자료: OECD(2019), "Where Have the Middle Class Job Gone?", Ch3 in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Acemoglu · Autor(2011)는 직업별 평균임금 수준을 기술수준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월 4백만원 이상의 임금소득자 비중의 순으로 직업군(대분류 기준)을 <표 a-2>와 같이 분류하였다.¹²⁾

〈표 a-2〉 임금수준별 직업분류

직업(대분류)	저임금(저위기술) ←					→ 고임금(고위기술)		
	단순노무	서비스	판매	기능원	장치·조립	사무	전문가	관리자
4백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	0.4	5.8	8.9	12.4	14.5	26.3	30.3	75.3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9년 상반기)

12)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는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중 통계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박세준, 박창현, 오용현(2013), “경기-고용간 관계 변화의 구조적 요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BOK 이슈노트, 2013-8

박용민, 권기백, 이나영(2018),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한 평가: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을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2018-9

오삼일, 강달현(2019), “노동이동(worker flows)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조사통계월보, 73(6)

이동진(2019), “고용상황과 실물경기간 관계변화 분석”, 시장경제연구, 48(1), pp. 43-85

Acemoglu, D., and D. Autor(2011), “Skills, Tasks and Technologie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Ch12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pp. 1043-1171

Abraham, K. and M. Kearney(2018), “Explaining the Decline in the US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A Review of the Evidence”, NBER Working Paper 24333

Abel, A., B. Bernanke, and D. Croushore(2014), Macroeconomics, 8th ed., Pearson: Boston

Baker, E.(2018), “Down and Down We Go: The Falling U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Monthly Labor Review, BLS, Oct 2018

Barnichon, R.(2018), “The Ins and Out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Mimeo

Charles, K., E. Hurst and M. Schwartz(2018), “The Transformation of Manufacturing and the Decline in US Employment”, NBER Working Paper 24468

OECD(2019),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Shimer, R.(2012), “Reassessing the Ins and Outs of Unemployment”,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5(2), pp. 127-148

Valletta, R. and N. Barlow(2018), “The Prime-Age Workforce and Labor Market Polarization”, FRBSF Economic Letter, 2018-21

Copyright ©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2020-5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64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